

# ‘월드뮤직 페스티벌’ 올해는 야외무대에서 만나요

2010년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도베 나호르, 2019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뉴 아티스트 상 수상자인 넬라 등 해외의 정상급 가수와 국내 가수 등 12개 팀이 참여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이 펼쳐진다. ACC재단이 아시아문화광장을 비롯해 예술극장, 5·18민주광장 등에서 개최하는 ‘2022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8월 26~27일)이 그것.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은 해외 뮤지션 초청과 야외무대를 마련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실내 공연만 진행됐던 터라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먼저 페스티벌 문은 오는 8월 26일 오후 6시 ‘덩기두밥 프로젝트’ (무대1)가 연다. 민요를 모티브로 국악적 소리와 재즈를 융합한 프로젝트 팀으로 전통과 다양한 음악을 융합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덩기두밥 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보듯 한국적 장단을 표현하는 ‘덩기’와 재즈의 장르 중 ‘비밥’과 재즈 음악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두비두비’라는 표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만들어진 팀이다. 보컬 김보라를 주축으로 기타리스트 김동환과 드러머 이도현,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 트럼페터 배선용이 함께 하며 지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첫 공연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이후 오후 8시에는 ‘밴드날다’가 공연을 펼친다. 시대를 공유할 수 있는 국악, 소통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팀이다.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해 TOP 10위 까지 오르며 대중들에게 인상을 남긴 소리꾼 오단해와 신진국악실용무대에서 창의적 무대로 주목받

은 소리꾼 박정수와 함께 국악, 재즈, 블루스, 펑크를 연주하는 다양한 아티스트가 함께한다.

무대2에서는 밤 9시 도베 나호르가 공연을 한다. 아시아문화광장 ACC스테이지에서 도베 나호르는 아프리카 음악을 토대로 환상적인 댄스와 파워풀한 퍼포먼스 그리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 밤10시 무대1에서는 ‘존노 & 고영열’의 무대가 예정돼 있다. 미성을 지닌 합합 테너 존노와 어떤 노래든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풀어내는 소리꾼 고영열이 관객들의 열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3’에서 ‘넌 내가 노래해야 할 음악이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주목을 받았다.

이튿날 27일 무대1 (오후 6시)에서는 ‘고하얀 트리오’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오후 8시에는 ‘해파리 × Dark Shadow’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밤 10시에는 베네수엘라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안달루시안 감성이 뒤섞인 넬라가 파워풀한 목소리로 축제의 신명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자람

ACC재단, 8월26~27일 亞문화광장·예술극장·5·18민주광장서 개최  
‘덩기두밥 프로젝트’ 무대 시작으로 ‘밴드날다’·도베 나호르 등 공연

무대3에서는 오후 5시부터 국악인 이자람의 공연이 극장2 월드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춘향가, 적벽가)의 이수자인 이자람의 무대는 벌써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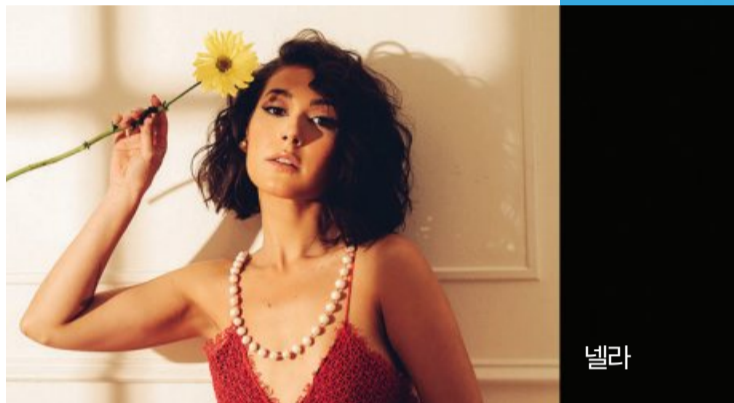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8개 팀의 지역협력 공연도 예정돼 있다. 공모로 선정된 이들 팀은 5·18 민주광장에서 자신들만의 개성있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관객 참여 워크숍,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행사로 마련돼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최근에는 75명으로 구성된 월드뮤직페스티벌 자원활동가들이 ‘유펠밴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야외 공연은 무료, 실내 공연은 유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넬라



## 부채에 그려진 ‘光고을 Story’

금봉미술관, 작가 50여명 참여 8월 25일까지 전시

‘여름 부채에 담아낸 광주 풍경.’

시원함과 멋, 풍류가 담겨있는 부채는 여름철이면 선물로 많이 주고 받았었다. 선조들은 부채의 여백에 글과 그림의 멋스러움을 담아 그 운치를 풀어 무더운 여름에 순응하는 여유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광주시 북구 각화대로 91)은 매년 여름이면 다양한 주제로 부채 전시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광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부채를 선보이는 기획을 준비했다. 작가들은 빛과 열을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서 펼쳐보

였다.

오는 8월25일까지 ‘光고을 Sto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작가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먹과 담채를 사용해 산수화와 문인화 서예 등을 부채에 그리는 작가들로 참여작가를 한정하지 않고 서양화, 공예작가까지 확장,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으려 했다.

작가들은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구석구석 숨어있는 광주의 삶의 현장들을 찾아냈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각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윤종금 작 ‘무각사’

여름 부채 작품에 담았다. 권애술·김미애 작가는 먹으로 그려낸 무등산 수박을 소재로 작업했고, 설조환 작가는 운치있는 무등산 자락을 담았다.

유소연 작가는 5·18 광장의 분수대를, 윤종금 작가는 광주시민들의 도심 안식처인 무각사를 부채에 그렸다. 또 무등산 호랑이는 이두환 작가의 부채 속에서, 분주한 송정역 시장의 모습은 이유빈 작가의 부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풍양정의 모습(임동진 작가), 옛 전남도청 풍경(정해영 작가)도 부채에 담겼다.

참여작은 고미아·기경숙·박문수·양병구·유소연·박환숙·백미리·백은영·설수정·장복수·정현경·조선아 작가 등이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2000년 전 한 남녀의 사랑이야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26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대면 공연으로 만나는 김원중의 달거리.’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뽕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 시작돼 126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2년 간 비대면으로 진행돼오다 대면 공연으로 전환되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김원중은 음악 인생 30년 넘게 민중과 통일을 노래해왔다. ‘뽕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는 지역민들이 직접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 후일 급이 ‘북녘어린이영양방공장사업본부’의 평양 뽕 공장으로 보내지기에 말 그대로 ‘뽕 만드는 공연’이라 부른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350만원의 성금을 보태,

15년째 1억 2600만원을 북녘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7월 공연은 ‘옛 산동교에서 마지막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광주·전남 역사와 문화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진 김원중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선사유적지를 모티브로 한 곡을 선보인다. 2000여 년 전 신창동 선사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노래로 담아냈다.

아울러 이번 공연에는 느티나무밴드,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주홍, 밴드 우물안개구리가 출연한다. 특별한 무대로 마련된다. 광산구 고려인 마을의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해 ‘러시아 민요’와 ‘홀로아리랑’을 부른다.

전석 무료. 공연 및 후원 문의 010-3670-5802.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권애술 작 ‘무등산 수박’



유소연 작 ‘분수대’

## 이태호 교수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네번째 강연... 27일 세미나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2022 미술관 아카데미 ‘즐거움 미술관 활용법’ 네번째 강의를 27일(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태호(사진) 명지대 석좌교수가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의에서 이교수는 미술작품에 대한 수집 욕구를

비롯한 개인 자산적 가치, 문화유산과 민족자산의 공공재, 뮤지엄과 아카이브로서의 사회적 의미 등 미술작품의 중요성을 작품과 함께 보여준다. 또 한국미술사의 명칭을 통해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며 작품 진위감정을 했던 경험담을 통해 미술시장을 읽고 작품을 고르는 방법 등도 알려줄 예정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근현대 회화까지 한국미술



이태호

사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조선 후기 회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교수는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 연구사, 전남대 교수, 명지대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사람을 사랑한 시대의 예술’, ‘조선 후기 초상화, 이야기 한국미술사’ 등이 있다. 60명 선착순 예약제. 미술관 홈페이지 예약.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담양 보임센 ‘뚝뚝뚝 찾아가는 미술관’ 진행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센은 오는 8월부터 ‘2022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으로 ‘뚝뚝뚝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기획이다.

‘나무’를 큰 주제로 목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뚝뚝뚝 찾아가는 미술관’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미술관 소장품 전시와 설명, 2단계는 목재 의자 만들기과 창작활동 중 망치소리를 이용한 난타체험, 마지막 3단

계는 서로의 의자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목재를 활용,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에서 놀이, 감상, 체험 활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공예미술관 보임센은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 ‘휴’를 소재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내 친구 토토와 함께하는 예술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를 통해 공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